

21세기 문화 주도할 전문 지식인 양성

- 상명대학교 동송캠퍼스 예술디자인 대학원 -

서 명 덕 | 상명대 총장

현대 사회는 대중문화의 흥수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 '문화'라는 영역이 자리잡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문화의 중요도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보다 낮은 영역으로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경제 성장과 맞물리면서, 문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흐름 내지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코드로 여겨지게 되었고 점차 지구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명대는 문화의 핵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올해 5월 16일 서울 본교에 위치해 있던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을 대학문화의 메카인 대학로 동송동으로 옮겼다.

대학원 이전의 의미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반인들이 문화와 예술을 좀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로는 연극이나 영화뿐 아니라 공연장이나 갤러리도 곳곳에 위치해 있어,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학생들은 이러한 현장성을 살려 지식을 곧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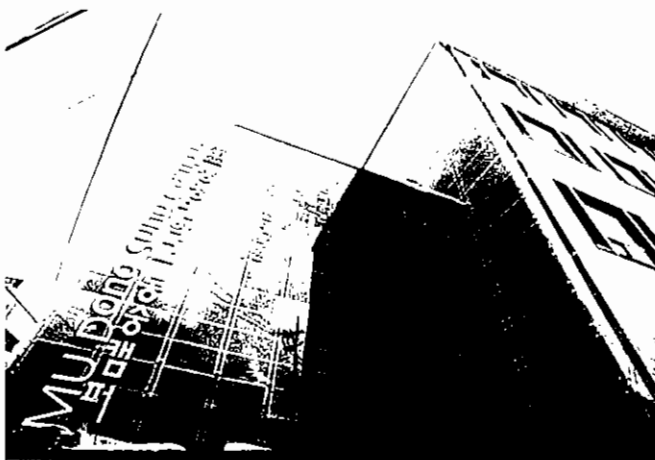
특성화된 교과과정 및 교육목표

상명대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SMART-2005>는 대학의 특성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분야에서 개성화, 전문화된 전문교육기관으로 경쟁력을 갖추자는 내용이다. 이 정책에 따라 상명대의 미래비전을 첨단정보 과학대학, 예술과 디자인중심대학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데, 예술·디자인대학원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특성화 및 전문화를 살렸다.

예술·디자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9개 학과와 13개 전공으로 나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일러스트레이션 전공,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 사진학과(광고사진 전






문화의 중심부 위치

예술·디자인대학원은 동송캠퍼스로 이전하여 정착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화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어 한국연출가협회, 평론가협회 등과의 교류를 맺고 있으며, 각종 예술산업 전문가들의 워크숍이 이곳에서 열린다.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직접

적인 접촉은 학생들에게 이론학습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365일 24시간 학생들에게 실습실을 개방하고 있으며, 각 학과마다 필요한 실습장비의 무료 개방과 편의시설의 제공은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육 환경을 뒷받침해 준다는 목적을 지닌다. 

공, 포토저널리즘 전공, 순수·이미지사이언스 전공, 의상·섬유디자인학과(의상디자인 전공, 섬유디자인 전공), 실내디자인학과(실내디자인 전공), 영화학과(영화 전공), 연극학과(연극 전공), 무대미술학과(무대미술 전공), 만화영상학과(만화영상 전공)가 그것이다.

상명대는 1996년 국내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만화학과가 개설되어, 만화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론적,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 깊이 있는 학문적 접근과 기술적 능력을 갖추길 원하는 전공자들을 위해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양질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서구 공연예술의 한국적 수용을 위하여 1995년 신설된 예술대학 공연학부의 무대미술 전공은 공연 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과 무대기술, 무대미술, 무대의상, 조명, 극장설계, 극장관리 등 실제적 기술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공연 예술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론을 탐구하고 실제적 기술과 기량을 겸비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서의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